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7.6>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2558호(2017. 6. 2)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국내 및 유로존 주식 중장기적 매력도 증가

글로벌 자산군 선호도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01

국내 주식

국내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단기 상승 모멘텀 유효하나, 대외적 잠재 시장 위험 주의 필요

- 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최근 수익 성장 예상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상승모멘텀이 유지, 단기간 유효할 것
- 중기: 문대통령의 성장지향 정책은 반드시 친기업 정책이 아니고, 주요 공약들(최저임금상향, 노동환경 규제강화 등)이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음. 미국무역마찰, 지정학적 위험 등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중국의 잠재시장 위험을 고려할 때 주의 필요

02

국내 채권

단기적으로 강제 요인이 더 우세하나, 미 FOMC 이후 되돌림 장세 전개 예상

- 단기: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내 경기회복세 지속 등을 감안하면 6월 채권시장은 약세 전망 우세. 다만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인식으로 소폭의 금리반락 되돌림 장세 전개될 전망. 6월 채권시장은 FOMC를 기점으로 전락후강의 약보합 장세 예상
- 중기: 하반기 국내물가 및 수출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높지 못할 것. 그러나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고용창출 등에 힘입어 소비가 다소 개선되며 성장을 둔화를 방어해줄 전망. 한편 하반기 중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채권수익률의 동반 상승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국내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동결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채권시장은 큰 폭의 금리상승보다는 제한적인 금리상승세 예상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상승 모멘텀 둔화, 유럽은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상승 모멘텀 지속 전망

-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 저조와 소비성장이 0.3%에 그쳤다는 우려감에 따른 주식시장 상승모멘텀 둔화로 박스권 장세 예상
- 유럽: 경제 투자심리 개선 및 유로존 PMI 상승, 매출 서프라이즈 등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비중 확대 권고

04

신흥국 주식

이머징 국가 중 인도 최선호, 중국은 경기 회복 세이나 정책 리스크 존재 상존

- 인도: 소비와 투자에 있어 견조한 내수환경과 연이은 개혁조치로 외국인투자 지속, 대외지급여력 및 부채건전성에도 양호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있어 추가, 환율 변동성이 제한적
- 중국: 여전히 지나친 영향력이 작음하며 상당 부분이 재무재표상에 나타나지 않아, 투자 위험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디레버리징 및 금융규제 강도와 속도가 가파라질 경우, 원자재 수요 위축과 해당 수출국, 이머징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주의 필요

05

해외 채권

단기적 저평가 상태, 듀레이션 소폭 축소 권고

- 단기: 미정부채 듀레이션 비중 축소 권고, 미국 기업의 레버리지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HY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분할 매도 권고
- 중기: 이머징 시장 통화의 상승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머징 시장 현지 통화 채권은 비중 확대 권고

06

원자재

원유 재고량 및 성장을 둔화 등에 따라 중립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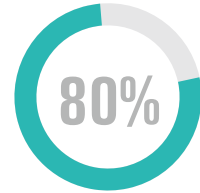
- 유가: 미국 원유 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리비아 등 타 국가의 증산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인 점, 원유 순투기물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립 의견 유지
- 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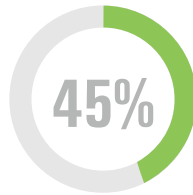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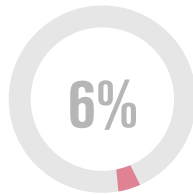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위험중립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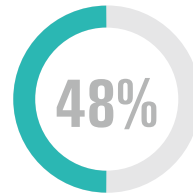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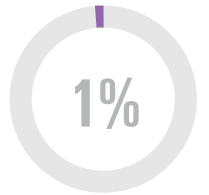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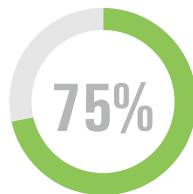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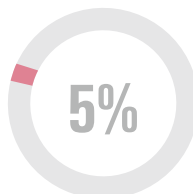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성장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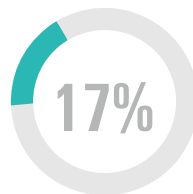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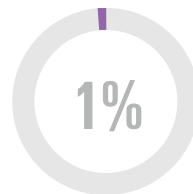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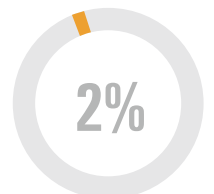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대체투자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대통령 선거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최근 수익 성장 예상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상승모멘텀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간 유효할 것으로 판단	문대통령의 성장지향 정책은 반드시 친기업 정책이 아니고, 주요공약들(최저임금상향, 노동환경 규제강화 등)이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음. 미국무역마찰, 지정학적 위험 등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 향후 중국의 잠재시장위험을 고려할 때 주의할 필요 있음
	채권	=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 등을 감안하면 6월 채권시장은 약세요인이 강세요인보다 좀 더 우세. 다만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인식으로 소폭의 금리 반락 되돌림 장세가 전개될 전망. 6월 채권 시장은 FOMC를 기점으로 전약후강의 약보합 장세 예상	하반기 국내물가 및 수출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높지 못할 것. 그러나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고용창출 등에 힘입어 소비가 다소나마 개선되며 성장을 둔화를 방어해줄 전망. 한편 하반기 중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채권수익률의 동반 상승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국내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동결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채권시장은 큰 폭의 금리상승보다는 제한적인 금리상승세가 예상
해외선진	미국	-	1분기 경제성장률 저조와 소비성장이 0.3%에 그쳤다는 우려감 존재에 따라 주식시장 상승모멘텀 둔화에 따른 박스권장세 예상	1분기 기업실적은 예상을 상회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이익성장률 대비 주가상승률이 높아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여 기존 비중 축소 의견 유지
	유럽	+	프랑스 대선결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되면서 위험선호도 개선	경제 선제멘트 지수 개선 및 유로존 PM 상승, 매출 서프라이즈등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비중확대 권고
	일본	-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로 엔화는 약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주가 상승세 견인. 그러나 비교적 높은 환율 수준에서 엔화약세에 따른 주가상승은 둔화 예상	수출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계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러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해외이머징	브라질	-	2016년 이후 유가하락과 식품,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3-6%)에 진입하며 물가안정세 지속되며 양호한 경기흐름. 현재 주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	현 테메르 대통령이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한 범죄로 기소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과거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브라질 환율 변동성도 높아질 것임. 개혁재개 가능성도 낮아지고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러시아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과 달리 러시아는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두차례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하였으며, 기준금리 인하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차별화된 모습임. 또한, 최근 유가상승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모습	서방경제제재와 자유가가 지속된 지난 2년간 농산물 중심의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정 안정성 제고 등으로 대외민감도를 감소하여 왔고, 시의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 등으로 체질을 개선시켜왔음.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 매력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유가 급락시 기업이익 하락으로 재검토 필요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인도	=	중장기적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이며, 당분간 선진 및 신흥국 동반상승기류 지속	소비와 투자에 있어 견조한 내수환경과 연이은 개혁조치로 외국인투자 지속, 대외자금여력 및 부채건전성에도 양호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있어 추가, 환율 변동성이 제한적
	아세안	=	상당기간 진행되어 온 선진국 내수회복에 힘입어 신흥국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 및 신흥국 동반 경기회복세를 보임. 당분간 모멘텀 진행 시 베타가 높은 아세안이 매력적	시장이벤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정책(시장)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대만 등 제조업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 중국성장을 정체, 한국과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등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악화되고 있어 강한 모멘텀 장세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
해외이머징	중국	=	2분기는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지속, 세금, 월말요인 및 계절요인을 감안할 때 유동성 압박 예상. 중국은행들의 듀레이션 불일치, 인민은행의 중립적 통화정책과 금융 디레버리징 진행, 반기말 금융기관의 자금수요 증가 등은 2013년 그림자 금융 우려가 부각된 것과 비슷하나 정부의 선제적 리스크 해소로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급격한 조정을 예상하지 않음	중국은 여전히 지나친 영향력이 작용하는 점과 상당부분이 재무재표상에 나타나지 않아 위험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디레버리징 및 금융규제 강도, 속도가 가파라질 경우, 원자재 수요위축과 해당 수출국, 이머징 마켓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주의 필요
	홍콩	=	낮은 밸류에이션, 본토 디레버리징으로 홍콩 증시의 상대매력도 상승하는 국면	중국의 정책리스크 정도 및 이에 미치는 금융시장 여파에 따라 상대매력도 재검토 필요
해외채권	채권	-	미정부채 듀레이션 비중축소 권고, 미국기업의 레버리지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HY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어 과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분할 매도 권고	이머징 마켓 통화의 상승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머징 마켓 현지 통화 채권은 비중 확대 권고
대체투자	유가	=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OPEC 감산 합의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유가를 일부 지지할 수 있는 요인	미국 원유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리비아 등 타 국가의 증산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인 점, 원유 순투기물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립 의견 유지
	금	=	프랑스 대선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었고, 금 가격도 조정을 보임. 다만 미경기지표 둔화로 미 국채금리는 박스권을 유지했고 금 가격하단도 지지되었음. 단기 박스권 유지 전망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금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EuroStoxx50 지수

프랑스 대선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의 EU탈퇴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총선 결과와 함께 유럽지역의 극우 포퓰리즘 이슈는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정권의 법인세 인하와 같은 시장친화적 정책은 당분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럽지역의 주요 정치 이벤트는 9월 독일 총선이며, 올해 실시된 3차례 주의회 선거는 모두 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메르켈 총리의 연임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며, 독일 대선은 큰 이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반기 주요 정치 이벤트가 해소된 상황에서 유로존 펀더멘털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GDP는 올해 1분기까지 전기 대비 0.5%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주도하였습니다. 채무위기 전후 단행된 노동시장,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하반기 또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HSCEI 지수

4월 중국의 실물경제지표는 3월에 비하여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였으나, 3월(7.6%)보다 둔화되었습니다. 4월 소매판매 역시 10.7% 증가하였으나 3월 10.9%보다 낮아졌습니다. 4월 중국 실물경제지표는 전월 대비 낮아졌으나,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1분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 대비 6.9% 성장하며 연간 목표인 6.5%를 초과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부동산규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안정성장 유도의 지를 보임에 따라 4월 경제지표 둔화세는 정부가 의도한 위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반기 11월 제 19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가 대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연 6.5% 내외 성장)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 지표입니다. 지불가격, 신규주문, 출하정도, 생산, 재고, 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신뢰도 평가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리플레이션(Reflation)?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로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통화재팽창이라고도 합니다. 통화재팽창이란 불황 기간에 재정이나 금융을 완화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데 있어 통화재팽창의 정도가 정상 수준을 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화재팽창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디레버리지(Deleverage)? 디레버리지는 부채 정리를 뜻합니다. 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레버리지(Leverage)의 반대말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여 조달비용을 상환하고도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 효과적인 투자법입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에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높아진 금리와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일 때는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ELS 변액보험 상품 및 ELS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두물머리에서 운영하는 ELS리서치 (<http://elsresearch.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금리 시대를 해킹하다 - (ELS 뚝이 중헌디)

안녕하세요? ELS리서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LS라는 상품에 대한 기본 철학과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든 투자상품은 고유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모든 투자상품은 고유의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금융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수익이 높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집니다. 저축은행상품도, 고수익 채권도, P2P 대출도, 제 어떠한 선진 금융 기법으로 만든 금융상품도,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매우 불필요하게 비싼 점심'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금융에서의 좋은 투자란 항상, '가성비가 높은 점심'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ELS는 과연 가성비 좋은 점심인가, 비싼 점심인가,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저희는 ELS가 가진 독특한 가치로 인해 가성비가 매우 좋은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투자전략과 분석 방법이 섞이면 그 어떤 상품보다도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매력으로 인해 ELS 시장은 불과 수년만에 주식형 펀드를 따돌리고 네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 100조원 규모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ELS는 무엇보다, 원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손실빈도가 낮은 상품을 만들어주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ELS, 모델이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접근하다

그럼 ELS의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선행연구 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자로서의 상식의 선에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모든 투자상품이 그렇듯이, 모든 장점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전에만 달콤한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학자와 업계 종사자들이 합의에 다다른 날에는 ELS 마저도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 의존하여, 데이터를 통해 하나씩 검증해나가는 방법이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법입니다.

ELS 투자를 결정할 때는 사실 매크로 분석이나 계량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ELS는 꼬리 위험(tail risk)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ELS투자를 폄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ELS투자를 할 정도로 똑똑하다면 차라리 주식을 해라", "감내할 위험을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ELS다." 이런 류의 지적들 말입니다. 모두 ELS투자자들이 반드시 감내해야 할 꼬리 위험과 이 위험의 계산이 어려움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ELS 효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위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형태의 위험을 선택해 감내해야 하는데, 조기상환형 ELS는 꼬리 위험만 감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ELS는 손실빈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투자수단입니다. 투자 성공률이 낮아도 한번의 대박을 노리는 (벤처투자 같은) 상품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박이 없지만 성공률이 아주 높아 가끔씩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보험회사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마침 손실대학교의 강병진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구조화 파생상품의 투자 효용' 논문에도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AC_ELS(조기상환형 ELS)는 기대손실의 크기보다는 손실빈도를 위험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하는 투자자에게 대단히 효과적인 투자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중략)..결국 AC_ELS는 투자자가 보유한 여러 개의 심리계정 중 고위험/고수익 또는 적어도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심리계정에는 주요한 투자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LS의 효용은 이처럼 고승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투자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준다는데에 있습니다.

ELS를 위한 변명을 두 가지 더 붙이자면,

첫째로 흔히 말하는 꼬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세계 지수가 절반 이상 하락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ELS 고유의 리스크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지요.

둘째로 ELS가 그러한 꼬리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다른 파생상품들처럼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손실이 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이론적으로 원금만큼만 손실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금융위기 등을 통해 저희가 경험한 꼬리 위험을 갖춘 파생상품들은 원금이나 증거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수형 ELS는 주요 선진국이 3년 안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만 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위험의 폭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모든 투자는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그 와중에 오판을 한다면 점점 '비싼 점심'이 되어 손실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ELS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대부분의 경우의 수와 시장 가격이 반영된, 자체적으로 헷지가 완성된 상품입니다. 비록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직접 사고 팔아 운용한 것보다 대체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장이 50% 하락했다 제자리로 반등했을 때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ELS는 그러한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셈이며, 이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ELS 리서치 (<http://elsresearch.com>)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 하나로 편리하게 계약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구매 없이 MY카드프 APP에 접속!



MY카드프 APP 다운 받으세요!



▶ 검색창에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드프 입력 후 검색
▶ 설치버튼을 눌러 설치 실행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방문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 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 후 펀드 변경 신청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